

제 2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1-KRS0342

한글 성명: 신은현

내가 마주하는 '젊음'을
 나 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일까, 아님 건강
 한 체력일까, 아님 얼굴에서 보이는
 풋 함일까? 나는 이런 외적인 부분으로
 는 절대 젊음의 기준을 나눌 수 없다
 고 본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외적인
 것이 아님 내적인 것에서 출발하여야
 하듯 젊음의 기준 역시 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학교를 다니면서 종종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때 학교를 다니는 것을 분직이
 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왜 공부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다면 비난을
 한다. 그들이 비난을 하는 이유는 아마
 도 나이가 지긋한 그분들이 '젊지 못
 해서' 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말
 젊지 못하였을까? 외적인 것들로 그들
 의 젊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땀땀하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제 2 회 대 한 민 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1 - KRS0342

한글 성명: 신원현

앞서															만큼 했듯이															젊음은															단순히															외적																													
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내면에															점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에															구속받지															않고																													
배움에															있어서															명정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젊음을															설명																													
하기															충분하다.																																																																										
우리는															가끔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														
워한다.															마치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														
고															더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														
이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내면의															생각														
의															과실이															라고															말해주고															싶다.															언제나														
꿈을															앓지															않고															명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모든															순간이															젊음일															것이															틀														
림없다.																																																																																									
나는															프로듀서															라는															꿈을															가지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누군가는															나의															나이가															어려서															젊다고																													
하지만															나는															이런															내면적															태도가															젊음														
의															나를															만들다고															믿는다.															물론															꿈이라														
는															것은															이루어															질수도															이루지															못할														

제 2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1-KRS0342

한글 성명: 신원현

수	도		있	다.		긴		시	간	이		흔	러		지	금		내	가	
가	진		꿈	이		이	죽	어		진	다	고		하	여	도		나	는	
또	다	시		새	로	운		꿈	을		꿀		것	이	다.		그	리	고	
꿈	임	없	이		그		꿈	을		행	해		프	거	운		가	슴	을	
만	고		인	생	이	가	는		길	에		충	실	하	게		한	발	짝,	
한	발	짝	을		내	딛	으	며		걸	을		것	이	다.		이	런		
태	도	만	이		명	원	한			'	젊	음	'	을		마	죽	하	게	
할			것	이	다.															
			부	디		많	은		사	람	들	이		외	적	인		젊	음	에
망			검	작	하	여			누	군	가	의		외	모	를		부	러	웁
하	거	나	,		나	이	를		부	러	웁		하	거		말	고		내	면
속			자	신	을		들	여	다		보	았	으	면		좋	겠	다.		그
리	고		그		속	에	서		자	신	만	의		진	정	한		'	젊	
음	'	의		해	답	을		찾	을		수		있	기	를		바	라	다.	